

간호학 신임교수의 교수생활 경험

임은주¹ · 김미영²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조교수¹, 이화여자대학교 건강과학대학 간호과학부 부교수²

The Academic Work and Life Experience of Newly Appointed Professors of Nursing Science

Lim, Eun Ju¹ · Kim, Miyoung²

¹Assistant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Red Cross College of Nursing, Seoul

²Associate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College of Health Sciences, Division of Nursing Science, Seoul,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life of newly appointed professors of nursing by exploring the meaning and essence of their academic work and life experience. **Methods:** The participants consisted of 11 newly appointed female full-time professors with less than five years of experience who had been purposely sampled from three or four-year nursing colleges. Data were collected from October 2010 to December 2011 through the face-to-face interview and phone interview. Thematic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hermeneutic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Results:** The findings were classified into seven themes: 'Starting feeling hope and delight', 'putting sustained energy into lecturing and training', 'struggling in the tense atmosphere where assessments are often conducted', 'gaining courage in an associated relationship network', 'experiencing confusion of the identity as a professor', 'seeking compromise, handling their work and housework', and 'shedding new light on reality with self-awareness'. **Conclus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offered the foundation for the creation of human resources networks and mentoring programs that help newly appointed professors to effectively adjust to university society on the basis of the sympathetic understanding of and support for their life.

Key Words: Nursing faculty, Work, Life, Qualitative research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000년대 접어들어 대학설립 요건이 완화되고 신설 대학 수가 늘어나면서 신임교수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현재 4년제 대학의 경우, 2000년 10.3%를 차지하던 신임교수 비율이 2008년에는 14.6%로 증가하여 경력 5년 미만의 신임교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15%에 이르고 있다(Korean Educa-

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09). 간호학 전공 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최근 5년 이내 3년제 5개, 4년제 38개 간호대학이 신설되고 학생 수가 증원됨에 따라(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0) 신임교수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이들에 대한 간호학적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실정이다.

오랜 학문 수행의 기간을 마치고 교수가 된다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세계로의 전이를 의미하며, 교수로서 임용 직후 누리게 되는 기쁨과 성취로 인한 만족감, 자랑스러움은 이루 말

주요어: 간호학 교수, 업무, 생활, 질적 연구

Corresponding author: Kim, Miyoung

Department of Nursing, Ewha Womans University, 11-1 Daehyun-dong, Seodaemun-gu, Seoul 120-750, Korea.
Tel: +82-2-3277-6694, Fax: +82-2-3277-2850, E-mail: mykim0808@ewha.ac.kr

- 본 논문은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 박사학위 논문임.
- This article is doctor's thesis from Ewha Womans University.

투고일: 2012년 2월 14일 / 수정일: 2012년 4월 17일 / 게재확정일: 2012년 4월 18일

할 수 없을 것이다(Yeom, 2003). 또한 임용 후 개인 연구실과 새로운 학생과 동료가 생기고 새로운 지적 도전의 기회가 주어짐으로써 한 동안 흥분되고 행복한 시간을 누리게 된다(Brent & Felder, 1998). 그러나 신입교수 시기에 달성해야 할 중요한 발달 과업인 대학문화에 대한 이해와 적응, 전공 분야에서의 학문적 정착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강의평가와 업적평가, 재임용 평가로 인한 부담감으로 걱정과 두려움이 동반되기도 한다(Lane, Esser, Holte, & McCusker, 2010). 무엇보다 교수 임용 후 첫 몇 년 간은 정보로부터의 소외감, 동료의 지지 부족, 과중한 업무, 시간 부족 등으로 교수생활을 하는 동안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기간이다(Colbeck & Drago, 2005; Eddy & Gaston-Gayles, 2008). 신입교수의 시기는 정체성을 형성하며 대학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해 가는 과정이라고 볼 때(Jenkins, 2009), 이 시기는 교수로서의 성공적인 삶을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

신입교수의 교수 사회화 과정을 위한 지원 및 지지 방안과 관련하여 국외 대학에서는 교수가 대학에 입문한 후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교수로서의 삶을 체계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멘토의 지도와 조언을 받으며, 교수법과 교수개발워크숍, 교수성장계약제(professional growth contract)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신입교수가 성공적으로 대학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3년에서 5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지원을 받고 있다(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Professors, 2010).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 차원에서는 주로 대학 및 각 부처 소개, 행정업무 처리방법, 재임용 및 승진과 관련하여 주로 1일 이내의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교수 복지제도, 교수법 향상 등 1일에서 3일 동안 신입교수의 첫 입문 단계에 도움을 주고 있다(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2010). 따라서 신입교수가 대학에 보다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멘토링을 통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는 국외 사례와 비교해 보면 국내 대학에서의 신입교수에 대한 배려는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며, 신입교수가 대학생활 동안 교수 사회화 과정에서 겪을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신입교수를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신입교수의 임용현황 실태 분석(Yang, 2007)과 업무 및 업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Son & Oh, 2006)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반면 국외 연구에서는 신입교수의 업무 생활(Eddy & Gaston-Gayles, 2008; Murray, 2008)뿐만 아니라 교수 개인적 삶에 초점을 둔 탐색적 연구(O'Meara & Campbell, 2011; Philipsen, 2008)와 대학에 성공적으로 정

착하기 위한 지지 및 적응방안에 관한 연구(Jenkins, 2009)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국내 간호학 분야에서는 신입교수의 견해를 통해 교수의 삶을 심층적으로 제시된 연구는 보고된 바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신입교수의 대학생활 경험에 대해 해석학적 현상학을 적용하여 간호학과 신입교수들이 교수 입문 초기에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탐구하고자 한다. 나아가 신입교수의 성공적인 교수 사회화 과정을 돕고 간호교육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2. 현상에 대한 지향

본 연구 주제의 일차적인 관심은 3년 전 사립대학에 전임으로 임용 받은 연구자(1저자)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되었다.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전문 영역을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동료교수·직원·학생들과의 다양한 인간관계망 속에서의 간호학전공 교수로서, 가정에서는 가사와 육아를 책임지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신입교수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반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대학에 전임으로 임용된 지 5년 미만에 해당하는 간호학 신입교수로서의 교수생활 경험을 지향하면서 “간호학 신입교수가 경험하는 교수생활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현상학적 질문을 갖게 되었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 신입교수가 교수생활을 하는 동안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심층적으로 기술하고자 van Manen (1990)의 해석학적 현상학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다.

2. 실존적 탐구

1) 관용어구 추적

신입교수 생활의 중심 의미인 ‘첫’, ‘처음’, ‘시작(始作)’, ‘새(新)’의 의미가 포함된 관용어구를 살펴본 결과, 어떤 일을 새로이 맡게 될 경우 보편적으로 시작에는 일이 서툰고 마음이 긴장되며 정착할 때까지 어렵고 순조롭지 못한 처지로 표현되어 신입 교수생활의 특징을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 첫 해 권농(勸農): 어떤 일을 처음으로 할 때는 서투르다는 뜻
- 새 묘 써서 삼년: 새로 일을 시작할 때에는 적어도 삼 년은 탈 없이 지나야 안심하듯 처음에는 마음이 항상 긴장된 상태라는 뜻
- 귀머거리 삼년이요 병어리 삼년(이라): 여자는 시집가서 남의 말을 듣고도 못들은 체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

2) 문학과 예술로부터의 경험적 묘사

문학과 예술작품에서의 묘사를 통해 신입교수의 교수생활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통찰력을 갖고자 하였다. 먼저 수필 부문으로 Jang (2005)은 『빨리 대교협 평가가 끝났으면』이라는 작품을 통해 교수가 되면 학문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과 현실 사이에 괴리감을 느끼며 회의감마저 들게 하는 교수생활의 일면을 표현하고 있다.

요즘은 것처럼 추구했던 교수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조금씩 들기 시작한다. 교수가 되면 그동안 읽지 못했던 책, 쓰지 못했던 글들을 마음껏 읽고 써보리라고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게 아닌 것이다. (중략) 매년 학생들 어학 캠프와 해외연수가 있는데 올해는 학부통합과 학교통합, 게다가 대교협 평가까지 겹쳐 아예 책을 펼 시간조차 없는 날이 많다. 수업을 끝낸 후 잡다한 서류를 작성하고 회의 참석하고 나면 하루가 다 지나가버리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교수는 만능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수업과 연구 외에 학생지도, 학생취직, 학교 통폐합까지 일일이 책임져야 한다. 정말 그런 것이 훌륭한 교수인지 적이 의구심을 갖는다.

콩트 부문에서는 「어느 신입교수의 1년: 김 교수의 ‘체대로’ 권법 찾기」(Maeng, 2009)를 통해 교수가 현란한 처세술자(예권, 禮拳), 꼼꼼한 원칙주의자(당랑권, 螳螂拳), 뛰어난 연구역량의 소유자(육각권, 六腳拳) 등의 유형으로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각기 다른 방식을 취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 교수는 대학입시에서 경험한 삼수보다 훨씬 치열하고도 처절한 삼수의 삼수 끝에 가까스로 자리를 잡았다. 그는 자신의 취직을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학연이나 지연 없이 교수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어떻게 해서라도 지켜야지... 어떻게 잡은 자리인데... 김 교수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권법은 ‘禮拳(예권)’이었다. (중략)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상대에게 쓰는 권법이 달랐고, 지식이 많은 상대에게 쓰는 권법이 달랐으며, 보직이 높은 상대에게 쓰는 권법이 달랐다.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능수능란하게 권법을 바꾸는 것이었다. (중략) 교수는 ‘六腳拳(육각권)’을 연마하고 있었다. 그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방에 들어가면 나오지 않았다.

회화 부문으로 교수가 연구업적을 통해 승진·재임용 심사, 연구비지원 심사는 물론 연봉책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대학이 늘면서 연구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묘사하고 있다. 특히 연구로 인한 중압감은 정년을 보장받은 교수에 비해 이제 막 대학에 들어온 신입교수에게 더 무겁게 느껴지고 있다(Figure 1).

3. 연구참여자 선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참여자는 3·4년제 간호대학에 전임으로 재직하면서 5년 미만의 경력이 있는 신입 교수 11명을 목적적 표본 추출을 통해 선정하였다. 평균 나이는 만 40세 34~49세 범위)이었으며, 모두 여성으로 결혼여부는 기혼이 7명, 미혼이 4명이었다. 재직 지역은 서울 2명, 경기도 2명, 충청도 1명, 전라



Figure 1. 'Jungle' academy (Lee, 2009).

도 3명, 경상도 3명이었다. 재직기간은 평균 17개월(4~58개월 범위)이었으며, 소속대학 학제구분은 3년제가 6명, 4년제가 5명이었다. 대학 직급은 전임강사가 5명, 조교수가 6명이었고, 트랙구분은 비정년트랙이 3명, 정년트랙이 8명이었다. 주당 강의 및 실습시수는 평균 11.8시간이었으며, 학과장 및 각종 대학위원회와 같은 보직 활동을 7명이 담당하였다.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중 특성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거주 지역과 재직 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4명으로서 이 중 3명의 참여자는 기혼이었다. 연봉에 따른 참여자들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 연봉은 참여자의 소속 대학마다 기준이 달랐으며, 실무경력은 부분적으로 인정받았다. 임상경력은 평균 118개월(60~202개월 범위)이었으며, 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 아동간호학, 정신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간호관리학 전공 등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었다. 박사전공과 강의 교과목의 일치율은 64%, 임상 실무경력과 실습지도 과목과의 일치율은 80%였다.

본 연구참여자를 윤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연구자가 소속해 있는 대학의 기관윤리심사위원회(IRB No.: 2010-6-2)의 승인 하에 연구를 수행하였다. 참여자의 모집에 있어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연구참여에 대한 익명성 보장, 자발적인 연구참여 동의와 거부, 중도포기가능, 발생 가능한 이익과 불이익, 녹음기 사용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구두와 서면으로 설명하고 자발적인 동의서를 받아 참여자를 최대한으로 보호하였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15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면담 장소는 면담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자 또는 참여자의 연구실이나 참여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면담횟수는 1차에서 11회, 2차에서 6회, 3차에서 5회, 4차에서 3회로 총 25회 이루어졌으며, 자료 포화가 이루어지는 시기를 면담 종료시기로 삼았다. 1차에서는 면대면 면담을 하였고 2차부터는 면대면 면담과 전화 면담을 동반하였으며, 1회당 면담시간은 면대면의 경우 평균 90분, 전화 면담의 경우 40분 정도 소요되었다. 면담 시에는 연구참여자가 자유로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비구조화된 질문형식을 사용하였으며 면담을 위해 “임용 후부터 지금까지의 교수생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와 같은 폭넓은 질문으로 시작하였다. 필사본의 분량은 10포인트의 중고덕체로 A4용지 291매였다.

5. 해석학적 현상학적 분석과정

자료분석은 지속적인 반성과정(reflective process)을 거쳤으며, van Manen (1990)에 의해 기술된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 지침을 따랐다. 먼저 특별한 구성요소에 초점을 두기 전에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필사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었다. 귀납적인 추론을 통해 단어, 구, 절의 의미를 분석하였으며, 신입교수의 대학생활 경험에 대한 심층적인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 전체와 부분, 주제와 주제를 오가며 관련 진술에 몰입해갔다. 신입교수의 일상 언어에 주목하고 글쓰기와 글 다시 쓰기 과정을 거치면서 의미 있는 요소들이 주제로 통합되고, 확인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신입교수의 교수생활 경험의 7가지 주제가 도출되었다(Table 1). 또한 분리된 주제와 관용어구, 문학 및 예술작품에서의 기술 간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비교분석하여 교수생활의 의미에 대한 현상을 기술할 때 반영하였다.

6. 연구의 엄밀성

본 연구에서는 Lincoln과 Guba (1985)가 제시한 4가지 기준에 따라 질적 연구의 엄밀성을 충족하고자 하였다. 사실적 가치를 위해 3명의 참여자에게 분석 결과를 보여준 후 참여자의 의도와 다른 부분이 있는지, 경험 내용이 잘 전달되었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 세미나에서 3회에 걸쳐 본 연구결과에 대한 동료들의 조언을 통해 전문가 평가과정을 거쳤다. 특히 간호학이라는 학문적 특성이 결과에 잘 반영되어 있는지, 여성이라는 젠더 관점이 제목으로 제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적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간호학전공 신입교수 2인에게 연구 자료를 제시하여 검토 받은 결과 이해와 공감을 얻었다. 일관성을 위해 현상학 철학을 바탕으로 연구목적과 van Manen의 연구방법에 이르는 과정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였다.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주제와 현상에 대한 편견, 선 이해, 가정 등을 개인일지에 기록하여 연구자 자신의 판단이 연구자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괄호치기 하였다. 무엇보다 면담한 필사 내용이 참여자의 의미 전달에 충실하였는지, 면담 녹음을 다시 들으면서 참여자의 이야기를 중단하거나 유도한 질문은 없었는지 성찰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자의 편견, 가정과 선 이해는 다음과 같다.

- 임용 초기의 신입교수는 대학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Table 1. The Essential Themes of the Academic Work and Life Experience of Newly Appointed Professors of Nursing

Essential themes	Themes
Starting feeling hope and deligh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aking the first step full of dreams · Feeling proud in the middle of celebration and acknowledgment · Being thankful for given new opportunities
Putting sustained energy into lecturing and train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king every effort to prepare lectures · Utilizing field experiences in guiding clinical practices · Doing my best to acquire the latest clinical skills · Concentrating on establishing a close bond with the practice hospital
Struggling in the tense atmosphere where assessments are often conduct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cepting the results of lecture evaluation and exploring new teaching methods · Having formidable days with the decision on reappointment ahead · Feeling burdened with the score of performance appraisal
Gaining courage in an associated relationship netwo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inding the meaning and value of myself from students · Relying on senior professors' advice and encouragement · Sympathizing with other professors appointed in the same year · The family's help and support props up me
Experiencing confusion of the identity as a profess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eeling a limitation in preparing lectures on nursing, which is not my major · Feeling difficulty in playing roles other than teaching · Having to comply unconditionally with the atmosphere of the department · Excessive administrative works continue unmanageably · Consideration and support are not sufficient for my adaptation
Seeking compromise, handling their work and famil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tilizing all support system methods for serving both home and the workplace · Reconsidering the priority of roles at home and the workplace · Feeling sorry for the family's sacrifice
Shedding new light on reality with self-aware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mpromising with the realities through adjusting expectations · Considering turnover due to unfair treatment

- 신입교수는 강의 준비 및 강의평가와 관련된 부담감이 있을 것이다.
- 신입교수는 재임용이나 업적 평가와 관련된 부담감이 있을 것이다.
- 임상 실습지도와 인간관계 형성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 기혼인 신입 여교수는 가사 및 육아와 교수로서 업무를 병행하는데 갈등이 있을 것이다.

맞아하였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희망에 가득 찬 의욕적인 생활을 시작하였다. 참여자는 교수가 됨으로써 타자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으며, 교수라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었다.

박사학위를 오래 전에 땀기 때문에 오래 있다가 임용된 케이스잖아요. 이미 동기들은 교수가 다되었고, 나도 굉장히 좀 초조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막상 되고 나니까 마음은 진짜 편해지고 행복하더라구요. 초기에 긴장감이 있지만 일단은 취업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되고 여기는 '내가 있겠다고 하면 계속 있을 수 있는 곳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였죠(참여자 5).

가족들이 일단 굉장히 좋아하였죠. 모두가 대환영! 더군다나 서울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하고요. 저도 이제 다시 제2의 인생을 사는 거 같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있어요. '교수'라고 하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이잖아요. 누군가를 가르치고 돌볼 수 있다는 거 굉장히 귀한 직업이라고 생각해요(참여자 4).

연구결과

1. 간호학 신입교수의 교수생활 경험에 관한 해석학적 현상학적 반성

1) 희망과 기쁨을 향유하며 출발함

참여자는 대학교수로서 임용의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하였으며, 마침내 전임교원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었다. 전임교수라는 신분을 통해 인생의 또 다른 전환기를

2) 강의와 실습에 부단한 열정을 쏟음

참여자는 지식과 실무를 전수하는 교육자로서의 역할에 강한 책임감을 인식하였다. 특히 임상실습 지도에 실무 경험을 활용하면서 교수로서의 입장뿐 아니라 선배간호사로서의 입장을 더욱 강조하였으며, 전공 교육을 위해 만전을 기하였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학생들의 실습지이자 취업장인 병원과의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에도 주력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은 교수로서 당연히 감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강의 준비에 스트레스가 많아요. 왜냐면 다른 건 몰라도 아주 반드시 이것만은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게 나는 학생 강의예요. 내가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것만큼은 나의 온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요(참여자 4).

한 학기에 한번만 하면 되는 면담도 1차, 2차, 3차, 4차 면담까지 하고, 아직은 힘이 남아서 그런가, 어떻게든 학생을 공부시키고 변화시키고 싶은. 때로는 교수의 입장, 때로는 선배간호사의 입장이라 할까요. 그런데 굉장한 부담과 체력소진, 감정소모가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제 신입교수만이 가지는 열정과 소진의 그런 거라고 다들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참여자 6).

병원관계자를 만날 때는 병원에 미리 전화 하고 실습과 아울러 취업도 부탁해야 하고 학생을 지도하는 수간호사를 대할 때는 꼭 자식을 맡기고 인사드리는 학부모의 입장이죠. 실습 때만 찾아뵙지 않고 평상시에도 관계유지하려고 노력하죠(참여자 11).

3) 긴장된 업적평가 문화 속에서 고군분투함

강의평가 결과는 강의에 대한 열정이 점수로 환산된다는 씁쓸함이 따랐지만 강의평가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평가결과를 반성의 계기로 삼는 등 유연하게 대처하였다. 참여자들은 연구에 대한 압박과 부담감으로 진정한 학문을 위한 연구를 시도하기보다는 평가에서 살아남기 위한 연구를 하며 치열한 삶을 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대학 내 대부분의 업무활동이 점수로 귀결되어 있어 업적평가에서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다양한 정보탐색에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첫 1년이니까. 사실 제가 배워요. 학생들을 어떤 식으로 지도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깨닫는 시간이었던 거 같고 저는 강의 평가를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강의평가가 저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할지 동영상

을 더 활용해야 할지 생각하면서...(참여자 9)

우리는 들어올 때 2년 안에 SCI 몇 편을 써야 된다. 이런 약정서를 계약하고 들어왔거든요. 2년 안에 내가 이루어야 되는 그 논문 수! 그것은 내가 온 몸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이기에 힘들죠(참여자 5).

1년마다 재계약, 임명장이 딱 1년짜리... 그러니까 매년 임명을 하거든요. 내년에 내가 어떻게 될 거냐? 물론 정년트랙으로 들어간 거긴 하지만은 정년이고 비정년이 고 간에 그 전권을 가지고 있는 거는 재단 측이죠. 이게 사립대학에서 대학교수의 운명이죠. (중략) 그래서 주로 우리끼리 살아남는데 유용한 정보들. 어떤 교수님은 어떻게, 어떤 학과는 이렇고...(이런 얘기들을 하게 돼요) (참여자 11)

4) 지지적인 관계망으로 힘을 얻음

참여자는 다양한 계층에 있는 타자들과의 대인관계를 형성해 왔으며, 학생들과 선임, 동기교수와 지지적인 관계망을 통해 힘을 얻었다. 신입교수로서 고달픈 생활 속에서도 특히 학생들과의 관계 형성은 흥미로웠고 학생과의 면담을 통해 학생들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고 자신의 존재가치를 발견하기도 하였다.

‘교수님 잘 가르쳐 주셔서 너무 고맙웠어요.’ 학생들이 초콜릿 같은 거 갖다 놓고 이렇게 편지 같은 걸 쓰잖아요. 저는 우리 학생들이 너무 예쁘고 솔직히 여기서 가장 힘이 되는 건 우리 학생들이예요(참여자 8).

학교생활에 가장 도움이 된 거는 솔직히 옆방 선배 교수님이예요. 첫 해 지나고 바로 학과평가가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학과평가 점수를 막 매겨보니까 낙제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낙제점수다.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이 항목은 이렇게, 이 항목은 이렇게 대비를 하라면서 노하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참여자 2). 동료도 저랑 같은 날 왔어요. 같이 임용됐는데, 그 사람은 조교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어서 학교 행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나는 간호사 생활을 오래 했고... 서로 보완하면서 지지를 하는 친구가 있다는 거는 속에 있는 얘기 다 하고 그러면서 힘이 되는 거죠(참여자 8).

5) 교수로서의 정체성에 혼돈을 겪음

박사학위 전공이 아닌 간호학문 내 비전공강의를 담당하게 될 경우 부담감을 느끼면서 끊임없이 전공 소속감을 찾고 싶

은 열망을 가졌다. 참여자들은 과도한 행정업무로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힘들어 하였으며, 학과에서는 서열상 막내로서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다. 또한 일시에 다양한 역할기대에 노출되어 역할 선택과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 혼돈스러웠고 자신에게 부여되는 역할 기대와 자신이 추구하는 역할 기회 간의 괴리에서 비롯되는 심리적 갈등을 겪었다.

새로운 강의를 맡아서 학기 중에 잘 모르는 건 제가 공부하면서 강의하고 이리다 보니 질이 떨어질 거 같은 느낌... 또 제가 하면서도 '내가 이거 제대로 하고 있나?' OO 간호학이 전공인데 △△간호학 하고 있으니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요. 솔직히 제가 인터넷 강의 들었어요. △△간호학을 너무 몰라서요(참여자 7).

간호과에서 일어나는 일보다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같은 일들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 가장 당황스러웠던 거 같고요. (중략) 사실 교수가 되고자 한 것은 학생들을 잘 교육하고 간호사로서 경험했던 일들이라든지, 내가 배웠던 것을 후배 간호사들한테 잘 전수하고 모델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갔었는데... 이런 이유로 많이 실망을 했어요. 내가 과연 계속 이 길을 가야 되는지, 회의가 들었던 건 사실 이에요(참여자 1).

업무의 40%가 학과일, 수업 준비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저는 지금도 사실 주말이 없어요. 우리 남편이 뭐 워커홀릭 이라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학교에서 일을 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학교(대학본부) 일을 안 받으려고 위원회 안 하겠다고... (중략) 갑자기 "내일까지 해오라"는 것이 너무 많고 그런 게 나한테 맞지 않는지 힘이 부쳐요(참여자 2).

저는 선배교수로부터 나이도 어린데, 이래저래 말하는 거 아니라며 가히 보기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기죽은 듯 지내는 게 낫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거든요(참여자 7).

6) 일-가정 양립을 감당하며 타협점을 모색함

기혼 여교수의 경우 직장과 가정 일을 병행하는 데 있어 참여자는 가능한 지지체계 전략을 총동원하였으며 상황에 따라 역할의 우선순위를 재고하는 등 유연성 있게 대처하였다. 한편 참여자들은 일하는 여성으로서 가족들의 일상을 세밀하게 돌볼 수 없는 데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직장일과 가정일 중 어느 것이 먼저인지 저울질하며 처리하면서도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생각하고 일과 가정생활의 균

형을 이루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얘기를 낫 시간에는 대부분 베이비시터가 보고...(참여자 6)

엄마 역할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 데 자기의 달란트를 개발하고 뜻을 가지고 후배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난 수퍼우먼이 아니잖아요. 다 잘할 수 없거든요. 상황에 따라 더 중요한 일을 먼저 하면서 살게 되는 요령이 생겼어요(참여자 4).

가족들에게 미안하죠. 내가 박사 따고 여태까지 공부하고 시간강사하면서 보냈던 세월을 가족들은 참고 기다린 거거든. 교수가 될 때까지 기다렸으니까 '이제는 엄마가 우리를 해줄 차례이다'라고 당연히 생각하죠.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해줘야 되거든요...(참여자 11)

7) 자의식을 가지고 현실을 재조명함

참여자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신입으로서 거처야 할 단계라고 여겼으며, 직업으로서의 대학 교수직을 '잘 선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일부 참여자들은 현실과 이상적인 교수상 간에 괴리감을 느끼는가 하면 부당한 대우와 낮은 보수로 고민과 갈등 속에 이직을 결심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적응해야 되는 거고 아직 한 2~3년은 내가 배울 단계지 뭐 크게 뭔가 펼칠 단계는 아닌 거 같고요. 일단 배우면서 내 일, 내 강의라든가 실습이라든가 또 연구,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나를 위해서나 학교를 위하는 일인 거 같고요. 뭐 학교 발전을 위한 길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거고...(참여자 10)

초기에 제가 공부했던 목적은 교육과 연구에 주력하며 전문직으로서 인정받는 교수가 되기 위한 직장을 가지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초심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건데 지금에 만족하려고 하고 있죠(참여자 3).

내가(학교를) 나갈 수 있는 상황이면 나가고 싶어요.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교수에 대한 비전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이 생활이 달라질 거 같진 않거든요? 우리의 처우개선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된다'고 학교에서 적절한 대우를 해주면 모를까(참여자 1).

2. 해석학적 현상학적인 글쓰기

해석학적 현상학적 글쓰기에서는 van Manen (1990)이 언급한 네 가지의 실존체인 공간성(Spatiality), 관계성(Relationality), 신체성(Corporeality), 시간성(Temporality)을 토대로 글쓰기를 하였다. 박사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면 누구나 한 번쯤 대학에서 교수로서의 삶을 동경해 본다. 참여자는 임용되는 순간 소속감이 없는 시간강사의 신분에서 벗어나 대학의 전임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되어 더 이상 취업의 문을 두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로움을 만끽하였다. 앞으로 생활의 터전이 될 대학이라는 공간은 참여자에게 꿈꾸던 교수로서의 삶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진정으로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공간적 체험의 장이되었다. 더군다나 여성에게 있어서 교수라는 직업의 의미는 타자들로부터 인정받으면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고 비교적 대우받는 직업이며 교수라는 자화상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가졌다.

참여자들은 교수의 기본 업무 중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역할에 매진하기 시작하였으며 임용 초기에는 강의 준비에 전력투구하여도 부족하게만 느껴지는 강의에 혼신의 힘을 다하였다. 자신의 최신 실무 경험을 활용하여 임상술기를 지도한다는 긍지와 자신감이 있었고 병원과의 유대관계 형성에 주력하면서 '자식을 맡기는 부모의 입장'이 되어야 하는 관계적 체험에 맞닥뜨렸다. 학생들의 강의 평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로 돌아왔을 때는 배신감과 거부감이 들었지만 이를 고민과 반성의 기회로 삼았다. 책임용과 업적 평가와 같은 평가 문화는 신입교수들을 스스로 폐쇄된 공간에 갇히게 하여 지식을 탐구하고 폭넓은 대학 세계의 지평을 넓히는 확대된 의식의 세계를 갖게 하기보다 일정 기간 내에 업적물을 생산하여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입증해야 하는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자신과 고군분투하는 신체적 체험을 하였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참여자는 환희와 열정으로 시작한 신입교수로서의 인생 항해가 그리 순조롭지만은 않음을 깨달았다. 최근 신입교수로서 감당해야 할 연구에 대한 중압감은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가 황폐해지는 관계성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대학 생활은 참여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만 같은 두려움으로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임용동기 교수와는 동병상련의 처지로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기도 하였으며 선임교수의 꼼꼼한 조언과 격려 한 마디가 신입의 입장에서 감사할 따름이었다. 한편으로 학생들의 발전되고 변화된 모습을 지켜보면서 교수로서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깨달았다. 이러한 느낌은 전임이 되기 전보다 학생들과의 폭넓은 관

계적 체험을 통해 교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힘의 바탕이 되었다.

대학 조직사회는 서열화 되어 있어 신입교수로서 목소리를 제대로 내기 어려운 처지였다. 이러한 심경은 '귀머거리 삼 년이요 병어리 삼 년이라'는 우리나라 속담에서도 찾아 볼 수 있었으며, 대학 문화에 무조건 순응해야 한다는 분위기에 압도당하였다. 간혹 비전공강의 준비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야만 했고 강의를 잘 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과 더불어 두통, 생리통, 불면증, 헤르페스의 신체적 증상이 발현되는 등 강의준비에 한계를 느꼈다. 또한 대학과 학과에서 요구하는 끊임없는 행정과 봉사업무를 처리하면서 '내가 정말 교수인가' 하는 의구심과 끝없이 쏟아지는 업무들로 무력감에 빠져들었다. 교육자와 연구자로서의 역량을 제대로 펼칠 수가 없어 회의감에 휩싸이고 어느덧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면서 처음 교수가 되었을 때의 희망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실망감으로 전환되는 시간적 체험을 하였다.

기혼인 여교수는 직장과 가정 일을 병행함으로 인해 항상 시간에 쫓기며 질주하는 삶의 속도를 버거워 하였다. 이 과정에서 역할에 대한 시간 안배는 필수였으며 직장과 가정일은 상황에 따라 역할의 우선순위를 재고해야 하는 유연한 사고를 필요로 했다. 한 가정의 어머니와 아내로서 가족을 잘 보살피지 못한 죄의식을 가진 채 다중 역할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역할 수행의 균형을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인내하고 기다려준 가족들의 이해와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참여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자 기대치를 조정하고 현실과 타협하면서 갈등을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는 등 신입교수라는 꼬리표를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부 참여자들은 부적절한 처우와 갈등과 스트레스, 소속감이 결여됨으로 인하여 이직을 고려하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전임교수가 된 초기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특히 임용 받은 첫 해에 천신만고 했지만 최선을 다하며 보람을 느끼기도 했던 시간임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대학에 재직하는 동안 고민과 갈등이 거듭되는 생활을 하고 있지만 교수로서 정착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자위(自慰)하였고, 업무에 매진하고자 하는 의지의 단면을 보였다.

논 의

본 연구는 간호학 신입교수의 교수생활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여 이들의 삶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제한점은 참여자 선정에서 3년제, 4년제

교수를 모두 포함하였는데 연구결과 3년제 교수는 학생모집에, 4년제 교수는 연구의 중압감에 초점을 두어 경험의 배경에 차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추후에는 참여자 선정 시 참여자간의 동질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입교수는 길고 힘든 여정을 거쳐 교수로 임용됨으로써 새로운 지적 도전의 기회를 맞이하며 희망에 찬 각오를 다지고 교수라는 자부심을 가진 채 첫 출발을 하였다. 신입교수들의 임용 초기의 심리를 행복, 기대감(Yeom, 2003; Brent & Felder, 1998)으로 표현한 것은 본 연구의 첫 번째 주제인 '희망과 기쁨을 향유하며 출발함'과 같은 맥락이었다.

'강의와 실습에 부단한 열정을 쏟음' 주제에서는 교수의 업무 중 무엇보다도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우선시하며 강의와 실습 지도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나타냈다. 특히 간호학 신입교수들은 환자를 돌보는 전문직 간호사를 양성한다는 사명감을 바탕으로 이론과 실무의 격차를 줄이고 최신 임상실무를 습득하기 위해 교수임상연수 과정을 수료하였다. 또한 임상에서 학생들이 환자의 직접 간호를 수행하는 범위가 제한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이는 간호가 실무 학문으로써 끊임없이 변화하는 임상간호 실무환경을 교육에 반영해야 하고(Cope, Cuthbertson, & Stoddart, 2000), 간호학생들이 현장에서 통합적인 간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입교수로서 준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이론 강의 경험이 부족한 신입교수들은 강의 준비에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되었는데(O'Meara, Terosky, & Neumann, 2008) 이러한 결과는 이들이 강의 준비에 소진을 겪는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또한 신입교수가 교수법에 대한 훈련과 멘토링을 통해 강의 운영에 대한 지도와 아이디어를 갖는 것은 더 짧은 기간 내에 보다 우수한 교육자가 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긴장된 업적평가 문화 속에서 고군분투함' 주제에서는 재임용과 업적평가 등 평가문화에서 살아남기 위해 골몰하였다. 특히 연구 성과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주말에도 연구에 매진함으로써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여유가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연구 성과가 재임용과 승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으로써 직업과 개인적 삶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결과(Lindholm, Szelenyi, Hurtado, & Korn, 2005)와 같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신입교수들은 대학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평가기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족함으로 인해 혼란스러웠으며, 학과 내에서 이끌어 줄 만한 멘토의 부재는 변방에 홀로 있는 것(Eddy & Gaston-

Gayles, 2008)과 같은 고립감을 느끼게 하였다.

'지지적인 관계망으로 힘을 얻음' 주제에서는 간호학 신입교수가 다층적 관계망 속에서 임용동기 교수와 연대감을 형성하며 서로 의지하고 신입교수의 격려에 고무되기도 하였다. 이는 성공적인 교수 사회로의 정착을 위해 신입교수들에게 멘토링이 중요하다(Ropers-Huilman, 2001)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여성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소통에 비교적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있으므로 대부분 여교수로 구성되어 있는 간호학 전공 내 신입교수들은 보다 수용적인 태도로 신입교수를 이해하고 중재하는 멘토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참여자들에게 가족들의 심리적 지지와 도움이 교수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힘의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기혼 여교수의 가족 및 직업역할 수행과 인식을 조사한 연구결과(Park, 2003)에 따르면, 여교수들은 전문직에 대한 가족들의 자긍심이 커져 타 직종의 취업여성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지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문직 여성의 취업이 가정생활을 병립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반영한다.

'교수로서의 정체성에 혼돈을 겪음' 주제에서는 신입교수가 교수 본연의 업무 이외의 역할에 대해 갈등에 직면하면서 '내가 정말 교수인가'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과중한 행정업무가 지속되어 버거워 하였다. 박사전공과 강의 교과목이 일치하지 않는 참여자들은 이로 인해 강의 준비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등 비전공강의에 한계를 느끼면서 타 대학의 채용공고에 관심을 가지고 심리적 이탈감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신입교수가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전공적합성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신입교수들은 간호학 전공과 관련된 업무를 해야 함에도 타과 입학생 유치에 참여해야 하는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학생모집 활동에 동원되어야 하는 불가피한 현실 속에 교육과 연구가 등한시되면서 교수로서 정체성의 위기를 겪는다는 연구결과는 Son과 Oh (2006)의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일-가정 양립을 감당하며 타협점을 모색함' 주제에서는 신입교수들이 시간에 쫓기며 일과 개인적 삶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투쟁을 하고 있었다. 이는 다양한 업무를 해야 하는 대학 환경의 변화와 정년을 보장받기 위해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교육과 연구에 할애해야 하기 때문이다(Samble, 2008). 전문직 여성은 자녀를 양육할 때 소모되는 에너지와 시간투자로 힘들더라도 일정 시기만 잘 넘기면 평생 전문직 커리어를

유지할 수 있다(Sohn, 2005)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일과 가정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참여자들이 지지체계 전략을 동원할 때 전문직을 유지하도록 북돋워주는 가족과 친척들의 협조가 가능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교수라는 전문직으로 성공을 하였다 하더라도 자녀양육과 같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이는 시간적인 제약을 느끼더라도 일과 가정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연구결과(Snir, Harpaz, & Ben-Baruch, 2009)를 반영하며, 교수가 된 이후 자신의 삶을 더 열심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주체자가 되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신입교수의 업무와 가사 및 육아라는 다면적인 역할의 균형을 찾도록 교수로서 부임 후 첫 해 동안은 대학에서의 적응을 돕기 위해서 수업의 시수를 줄이고 행정적인 업무를 최소한으로 부여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의식을 가지고 현실을 재조명함은 신입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기대치를 조정해 나가거나 현실을 다시 인식하고 돌파구를 찾기 위한 시도를 하겠다는 의미였다. 즉 일부 신입교수들은 보수와 처우에 대한 불만, 업무 부담감, 소속감의 결여 등으로 더 나은 근무조건을 찾아 나설 것을 고려하고 있었고, 실제로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연구에 참여하였던 두 명의 교수가 이러한 이유로 이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간호대학 교수를 대상으로 업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연구(Lane et al., 2010)에서 합리적인 연봉이 만족도를 증가시키고 업무의 지속의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어 이러한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교수의 빈번한 교체는 대학 차원에서는 새로운 교수 임용을 위한 불필요한 행정적 절차와 재정적 손실을 가져오며, 학생들에게 혼란이 가중될 것이고 교수 간에는 학과의 친화적 분위기가 상실될 우려가 있다(O’Meara et al., 2008). 신입교수의 업무 만족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것(Bieber & Worley, 2006)은 앞으로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교육학 신입교수의 교수되기에 대한 연구(Yeom, 2003)에서 제시한 신입교수로서의 정체성과 다양한 관계망, 다면적인 역할, 자기성찰 등의 결과와 유사한 맥락을 나타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신입교수들은 실습지도 활동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나타내고, 역할모델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나타내어 교수라는 신분 이외에도 선배간호사로서의 책임감을 드러냄으로써 간호학 분야의 독특한 특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여교수로서 아직까지 가정보다 직장 업무가 우

선순위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며, 가족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나타냈다. 본 연구결과가 갖는 간호학적 의의를 교육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본 연구는 신입교수의 생활 세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지지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신입교수들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신입교수와 신입교수와의 세대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대학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 개발의 토대를 제공하였다는 데 있다. 또한 앞으로 신입교수들이 대학 업무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활용한 신입교수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개발 및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아울러 신입교수들이 교수로서의 역할 전환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체계가 정책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학사회는 신입교수에게 대학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역할만 강조할 뿐 처우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담론만 이루어질 뿐 이들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학전공 신입교수의 직업적 삶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이들을 지원하는 지지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간호교육 정책 및 제도와 관련된 논의들이 진전되기 위한 통찰력을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간호학 전공 신입교수의 교수생활 경험을 탐색한 결과 7개의 본질적 주제가 도출되었다. 간호학 신입교수의 교수생활 경험은 자신이 처한 현실이 힘들고 고달프지만 강의와 실습지도의 교수(教授)활동에 애착을 가지면서 잠재된 역량을 발휘하고 내적 가치를 높여가는 등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삶을 주도해가는 의식의 주체자로 전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변화하고 있는 대학 교육환경과 교수의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간호학 신입교수의 삶을 재조명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신입교수가 대학 사회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지지체계 마련의 토대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교수생애 주기에 따라 교수생활 경험에 어떠한 차이가 있고,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종단적 연구를 시도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는 교수진의 대부분이 여성인 간호학과 신입교수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추후에는 신입 남자교수의 교수생활 경험을 탐색해 볼 것을 제언한다. 이러한 연구는 교수생활

경험의 의미에 있어서 젠더에 따른 신임교수의 문화적 차이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교수로서 역할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겪게 되는 신체, 사회, 심리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겪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밝히기 위한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 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Professors. (2010). *Teaching the teachers*. Retrieved October 20, 2010, from <http://www.aaup.org/AAUP/pubsres/academe/2010/JA/featbeck.htm>.
- Bieber, J. P., & Worley, L. K. (2006). Conceptualizing the academic life: Graduate students' perspectives.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77*(6), 1009-1035.
- Brent, R., & Felder, R. M. (1998). The new faculty member. *Chemical Engineering Education, 32*(2), 46-47.
- Colbeck, C. L., & Drago, R. (2005). Accept, avoid, resist: Faculty members' responses to bias against caregiving and how departments can help. *Change, 37*(6), 10-17.
- Cope, P., Cuthbertson, P., & Stoddart, B. (2000). Situated learning in the practice placement. *Journal of Advanced Nursing, 31*(4), 850-856.
- Eddy, P. L., & Gaston-Gayles, J. L. (2008). New faculty on the block: Issues of stress and support. *Journal of Human Behavior in the Social Environment, 17*(1), 89-106.
- Jang, C. S. (2005). "If assessments are done...". Retrieved May 3, 2010, from <http://www.kyosu.net/View.html?idxno=8405>.
- Jenkins, R. (2009). The five characteristics of successful new faculty members.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56*(4), 37-39.
-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2010). *Training course for new faculty*. Retrieved September 26, 2011, from <http://www.kcue.or.kr/index.htm>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09). *Analysis of the educational statistics*. Seou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0). *Statistical yearbook of education*. Seou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Lane, K. A., Esser, J., Holte, B., & McCusker, M. A. (2010). A study of nurse faculty job satisfaction in community colleges in Florida. *Teaching and Learning in Nursing, 5*, 16-26.
- Lee, J. Y. (2009). *'Jungle' academy*. Retrieved December 14, 2011, from <http://www.kyosu.net>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 Lindholm, J. A., Szelenyi, K., Hurtado, S., & Korn, W. S. (2005). *The American college teacher: National norms for the 2004-2005 HERI faculty survey*. LA: Higher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UCLA.
- Maeng, M. J. (2009). *One year of new faculty*. Retrieved March 22, 2011, from <http://www.kyosujob.com>
- Murray, J. P. (2008). New faculty members' perceptions of the academic work and life. *Journal of Human Behavior in the Social Environment, 17*(1), 107-128.
- O'Meara, K., & Campbell, C. M. (2011). Faculty sense of agency in decisions about work and family. *The Review of Higher Education, 34*(3), 447-476.
- O'Meara, K., Terosky, A. L., & Neumann, A. (2008). Faculty careers and work lives: A professional growth perspective. *ASHE Higher Education Report, 34*(3), 1-221.
- Park, J. H. (2003). The effect of doubles roles and perceptions of Korean married women professors about combining their career and family.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1*(1), 125-138.
- Philipsen, M. I. (2008). *Challenges of the faculty career for women: Success and sacrifice*. NJ, Hoboken: Wiley.
- Ropers-Huilman, B. (2001). Feminist poststructuralism in higher education: Opportunities for transforming teaching and learning. *Organization, 8*(2), 388-395.
- Samble, J. N. (2008). Female faculty: Challenges and choices in the united states and beyond. *New Directions for Higher Education, 143*, 55-62.
- Snir, R., Harpaz, I., & Ben-Baruch, D. (2009). Centrality of and investment in work and family among Israeli high-tech worker: A biocultural perspective. *Cross-Cultural Research, 43*(4), 366-374.
- Sohn, S. Y. (2005). Labor experiences and dilemma of highly-educated professional women in Korea. *Korean Journal of Women's Studies, 21*(3), 67-97.
- Son, J. J., & Oh, Y. J. (2006). A study on the academic life of local private university faculty. *The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24*, 97-125.
- van Manen, M. (199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New York: SUNY press.
- Yang, J. Y. (2007). *Comparative and analysis of faculty appointment institution of national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University, Daegu.
- Yeom, J. S. (2003). The lives of new faculty members and their work: The meaning of becoming university professor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8*(2), 135-160.